



완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9호



**2020년 3월호 교복임은 시민의 시대**

2020년 상반기 교육계를 강타한 두 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코로나 19고 다른 하나는 선거연령 하향이다.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지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완주 지역의 분위기는 어떨까? 청소년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선거법 위반 같은 시정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고산향교육공동체가 마련한 만 18세 투표시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집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아이들아, 너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거라”

● 김석(군산고 교사)

교육구성원들은 만18세 선거권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3월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완주 고산면 청년공간에 모여 ‘만 18세 투표시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산향교육공동체가 마련한 자리다. 이날 고산향교육공동체 이영미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고산고 송영웅, 완주고 공희준, 양현고 김은솔 학생, 군산고 김석 교사, 학부모 전명주 씨,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 김애란 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 **이영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이번 집담회는 교육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우선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짚어보자.

• **공희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출생일 때문에 생각보다 선거권을 가진 친구들이 많지 않다. 학교에서 정치 얘기를 잘 안 꺼내긴 해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투표하러 가겠다”, “누구 뽑을 거냐”며 관련 이야기를 하긴 한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까지는 아닌 거 같다. 생각보다는 크게 느껴지는 건 없는 편이다.

• **김은솔**= 4년 전에 전주한옥마을에서 청소년선거권 서명운동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다.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 보니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신기해하기도 하고 대체로 좋아한다.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별 반응이 없기도 하다.

• **송영웅**= 정치 쪽으로 딱히 관심이 없는 편이라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것도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됐다. 학교에서도 정치 관련한 이야기를 잘 안하다보니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 **김 석**=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사회에서는 우려가 앞서는 편이지만 이 일은 ‘기본권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선거철이 되면 노인문

제가 생길 때 정치인들이 찾아와 어루만져주고 해결책을 만들어주려고 한다. 학생들은 문제가 생겨도 갈 곳이 없다. 이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18세 청소년 전부가 아닌 30% 가량 일지라도, 정치인들이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전명주**= 우리 집만 보더라도 집안 풍경이 사뭇 달라졌다. 아빠가 딸한테 선거운동을 하더라. 이제 딸에게도 투표권이 생겼다고 말이다.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한 정책에 쏠린다거나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던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자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





## “우리도 곧 청년이라 일자리공약에 눈길 가”

● — 공희준(완주고)

각한다. 이제 초등교육부터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 **이영미**= 현재 어른인 세대들도 선거교육 제대로 한번 받지 않은 채 바로 실전에 들어갔었다. 그런데 어른들의 청소년들을 향한 우려가 강한 편이다.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선거교육이 필요하다.

• **김 석**= 오히려 어른들은 어릴 때부터 복종을 배웠다. 늘 ‘국가와 민족을 위해’라는 얘기를 들었고 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주인의식,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받았고 훨씬 앞서있다. 투표라는 것이 결국 계급투표이지 않나. 시민교육방법 중에 ‘자기이익의 관철’이라는 말이 있다. 공익이라는 건 허구일 뿐, 청소년이 어떤 당을 뽑든 고유권한이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 **공희준**= 기본적으로 투표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도의 교육을 할 필요는 있지만 선거교육의 취지는 좋을지라도 교육이 편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는 선생님도 본 적 있기 때문이다.

• **김은솔**= 청소년 투표권이 먼저 주어진 선진국도 처음부터 잘 하진 않았을 거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다보니 확대되고 그런 것이다. 흔히들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다. 성인도 투표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나. 물론 청소년도 정치적 관심이 없는 이들도 많지만 스무 살이 된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 **이영미**= 선거교육 이외에 학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는가.

• **김 석**= 지금은 논란을 피하려는 시기일 뿐, 선거가 끝나면 교재가 만들어질 것 같다. 현재 학생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배운 세대다. 이러한 배움은 불편함이나 충돌을 통해서 생기는 거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질 순 없다.

초등학교부터  
12년째  
민주주의 학습 중  
미숙하단 말  
납득할 수 없어



● — 김은솔(양현고)

정치 관심없는 편  
선거권  
연령 하향도  
부모님께  
듣고 알아



● — 송영웅(고산고)

왼쪽부터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 김애란 센터장, 학부모 전명주 씨, 군산고 김석 교사, 고산고 송영웅, 양현고 김은솔, 완주고 공희준 학생, 고산향교육공동체 이영미 집행위원장.





## “교내 선거교육 편향성 우려, 어느 정도 공감”

● 김애란(풀뿌리센터장)

•전명주= 동떨어진 교육 말고 실제로 우리가 참여해보는 걸 늘려나갔으면 한다. 삼권분립, 국회의 기능 이런 것들을 사회시간에 배우고 끝나지 않나. 소모임 단위로 의정활동 감시, 참관 등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

•김애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당당하게 말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으면 좋겠다. 어느 방식으로든 나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영미=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정책이나 공약에 관심이 갈 것 같다.

•공희준= 정책이 수립되고 반영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래서인지 교육보다는 청년, 창업 문제에 더 관심이 간다.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바뀐다 해도 수능을 보고 나면 청소년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도 교육을 받으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 고쳐주겠다는 공약이 있으면 좀 끌리긴 하겠다. 실질적으로는 청년, 대학등록금, 평생교육시스템 등 이런 문제에 유념하면서 투표할 것 같다.

•이영미= 이번 집담회를 하다 보니, ‘보이텔스바흐 합의’ 교육지침 내용이 이해된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청소년을 대상화 시켜놓았는지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보자.

•김 석= 유럽은 300년 걸렸던 걸 우리나라는 이제 70년 걸린 거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사회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다 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은솔= 정치 쪽 권리와 교육이 서로 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해야 이걸 함께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 학생회로서 정치

참여를 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학생 수 1,000명 중에 21명 정도만 참여를 하니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의원회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공부할 시간에 그런 걸 하나”는 애길 듣는다.

•공희준= 우리나라 특성 상 계단별 교육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년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권이 만 18세로 나뉘진 게 딱히 반갑지 않다. 선거권도 만 나이가 아닌 딱 18세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 싶다.

•김애란= 20대 청년들이 투표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의견을 말해도 좌절된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지난 촛불혁명으로 경험했듯, 계속 주장하다보면 언젠가 통한다는 걸 배웠지 않나.

•전명주= 어디선가 ‘정치적인 게 가장 인간적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정치적 문제를 ‘그들만의 것’이라고 분리시키곤 한다. 하지만 일상에서 법안들로 규정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변화가 역류하지 않도록 흐름을 잘 탔으면 좋겠다. 

청소년 정책솔림  
우려는 이해  
그 또한 성장과정  
더 많이  
교육하면될 일



● 전명주(학부모)

그간 우리가  
얼마나  
청소년들  
대상화시켰는지  
알 수 있는 자리



● 이영미(고산향)

이번 집담회에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구성원들이 참여해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 만18세 선거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 “신중하게 한 표 행사”

고산고등학교 김지훈 학생(19)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요. 그리고 저의 한 표로 인해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불안감도 있죠. 아직 정해둔 후보는 없지만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있어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취업, 저출산, 전염병 대처, 지소미아 등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진지하게 생각해 미래를 책임 질 수 있고, 현 정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고 싶어요.



### “사람 됨됨이 보고 선택”

고산고등학교 이대한 학생(19)

아버지로부터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정치를 알아야 빼앗기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투표할 때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말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명이 아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일 뿐이에요. 저희에게 투표권이 생기고 나서 학교 축제에 국회의원인 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명함을 나눠주고 사진 몇 장 찍고 바로 가버리는 모습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쉽게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없지만 다음 선거에서 공약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할거예요.



### “정치교육 더 많이 해주길”

완주고등학교 이주희 학생(19)

저는 이번 투표에 꼭 참여할 생각이예요. 현재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후보는 없어도 마음에 두고 있는 정당은 있어요. 학생들에게 정치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성향이 확실하지 않은데 벌써부터 투표하러니까 어렵기도 해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투표 방법, 정당의 의미를 접할 기회가 적다보니까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 기 고

# 더 중요한 건 민주시민 교육

장경덕 고산고등학교 교장

우여곡절 끝에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언론이나 정당들은 학교가 정치관이 될 것처럼 호들갑이다. 성숙한 어른들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미성숙한 아이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포장된 주장이 대부분이다.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의 저자 황선준 박사는 교육에 부여된 두 가지 임무는 지식과 역량을 제공하는 것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과 아이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우리들의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왔지만, 막상 아이들을 ‘교복입은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시민적 권리를 체득하게 하는 교육에는 매우 소홀하였다.

OECD 나라들 사이에서 3년마다 이루어지는 국제 민주주의 소양 테스트인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의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우울하다. 한국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지식적 측면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하지만 민주주의 가치나 행태 또는 참여 부문에서는 최하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이 낳은 참담한 결과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모의투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왜 우리는 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에 더 익숙해야 하나? 언젠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익숙할 수 있는 시장, 교육감의 공약을 놓고 분석하며 선택해보도록 하는 수업을 하고 싶었다. 새가슴이라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해 보았더니 안 된다. 아마도 후보자 이

름도 없고, 공약도 현실이 아닌 가상의 정책들을 담았다면 가능했을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박제된 교육은 결코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선거 때가 되면 실제 존재하는 정당의 이름을 사용하며 공약을 읽고 학생들의 선택(모의투표)을 통해 학교 내에서의 정권을 수립하는 훈련을 한다는 스웨덴의 정치 교육이 부럽기만 하다.

정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훈련 또는 연습을 통해 막상 유권자가 되었을 때 올바른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왜 안 되는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제법 의미를 부여하고도 싶다. 그러나 정

작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의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이다.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에게 왜 선거권을 주냐고 비난하기에 앞서, 아이들로 하여금 성숙한 판단력을 갖도록 하는 정치 교육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의 족쇄로 교실에서의 정치 교육을 통제하지 말고 현실 자료를 가지고 수업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하고 토론을 통해 선택을 하도록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꼭 필요하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깊게 곱씹어 본다.



우리 학교에서는 민주주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막상 아이들을 교복입은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시민적 권리를 체득하게 하는 교육에는 매우 소홀하였다.

학교 내 선거운동

알쏭달쏭  
선거정보

꼭!  
읽어  
줄게



①

교실마다 마구 붙일거야,  
내가 지지하는  
후보 대자보!

그러면 안돼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학교 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 금지

초대는 감사, 하지만 못가요.



②

OO동아리 주최  
O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아니요, 그러면 안돼요!!

동아리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및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금지



학생회장이  
아빠가 출마했다며  
강당으로 오라던데?

④ 안돼요!! 불가능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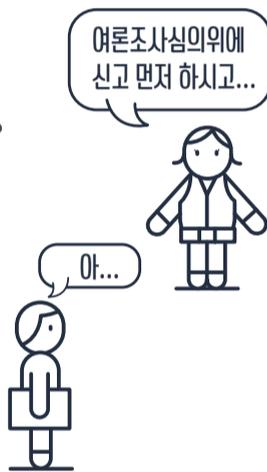
강당 등에서 다수 학생 대상의  
연설 모임, 집회는 금지  
단, 단순히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 대화는 가능

③

방송에 쓰려고 하는데  
학생, 여론조사 좀...

선거법 준수하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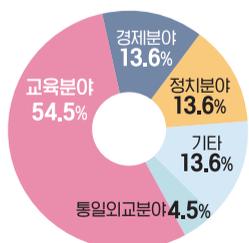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돼,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신고를 해야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하면 가능



친구의 선거부정을 알게되면? “신고 대신 경고” 73%

전북고교 회장 66명에 물었다

도내의 학생들은 만18세 투표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도내 전라북도고교회장단연합(JBSD) 소속  
회장, 부회장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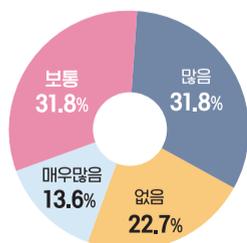
[관심있는 공약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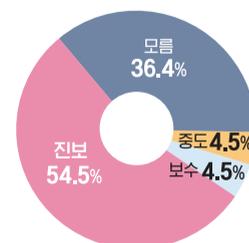
[시사정보 얻는 곳]



[친구의 부정을 알게되면]



[정치 관심 정도]



[정치 성향]

## 학생 개인

①

내 SNS인데  
싫은 후보 루머도 못올리나!

응, 그러면 안돼요!!

가짜뉴스는 사양

SNS에서도  
주의하세요!  
허위 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



②

내 후보는 소중한니까

유튜브로  
지지활동할거야

선거법 준수하면 돼요!!

만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직 취임도 가능

문자메시지, 유튜브,  
SNS로 선거운동하거나  
학교 밖 공개장소에서  
지지 연설, 대담도 가능



## 국·공립 교원

우리학생들!  
이번 선거에서  
OO당 찍을 사람 손~

안돼요, 선생님. 묻지마세요

학교 내 또는 수업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유·불리한 발언,  
행위, 업적 홍보 금지.

국·공립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과정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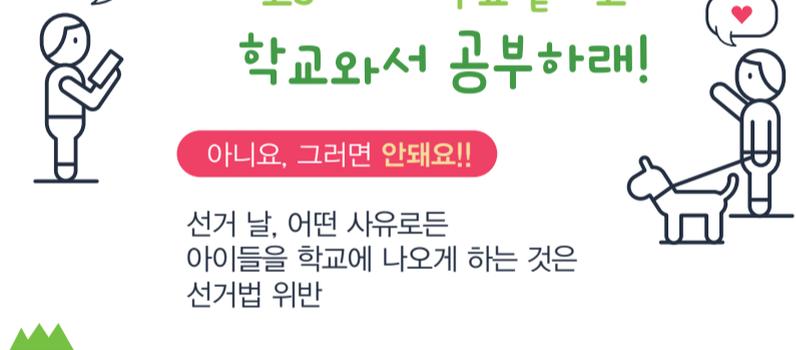


## 4.15 선거일

선거는 축제같은 날!  
공부도 알아서 잘 해요.고3이니까 투표 끝나고  
학교와서 공부하래!

아니요, 그러면 안돼요!!

선거 날, 어떤 사유로든  
아이들을 학교에 나오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우선 자신의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5%가 진보라고 대답했다. 모른다가 36.4%였고, 이어 중도(4.5%), 보수(4.5%)라고 대답했다. 이번 4.15 총선에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를 하겠냐는 질문에는 66명 모두가 '한다'고 대답했다.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많다고 보통이 각각 14명으로 31.8%를 차지했고, 없음이 22.7%, 매우 많음이 13.6%로 조사됐다. 관심이 많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국민으로 당연히 가져야 한다(59.1%)고 대답했다.

반대로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없음(63.6%), 정치에 대해 잘 몰라서(22.7%), 귀찮아서와 그동안 투표를 하지 않아서(4.5%)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주로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미디

어(8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13.6%)과 기타(4.5%)라고 대답한 학생도 있었다.

이들이 투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책/공약(72.7%), △인물/능력(27.3%)로 나타났다. 학생 신분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공약은 역시 교육(54.5%)이었다. 이어 경제, 정치, 기타가 각각 13.6%를 차지했다.

국회의원 출마자격이 주어진다면 후보 출마할 생각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54.5%가 '없다'라고, 31.8%가 '있다'고 대답했다.

## 전라북도고교회장단연합

도내 20여 개 학교 60여 명으로 구성된 학생자치단체이다. 전라북도 고교의 인권친화적인 학생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만 18세 선거

나이답게  
말고  
나답게!!

2020.4.15

완주 태산유기동물 임시보호소

길 잃고 버림받고 사고당하고  
갈 곳 없는 우리들의  
마지막 쉼터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 문의\_완주군 농업축산과 063-290-3248
- 최상영 소장\_010-4137-1009

지난해 말 태산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최상영 (53) 소장은 소양면에서 데려온 유기견의 주인을 찾아준 적 있다. 당시 푸들을 잃어버린 한 여성이 8개월여 만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신의 강아지 '시키'를 닮은 사진을 발견했고, 태산 보호소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찾아온 것이다. 최 소장은 "견주가 본인 강아지임을 확인하고 품에 안자 그 강아지가 경계를 풀고 편안하게 잠이 들더라고요. 견주가 엄청 울었어요. 저 역시 울었죠. 정말 신기하죠.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완주군에 접수된 유기동물 발생건수는 모두 290건이다. 이중 개가 281건으로 월등히 높은 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접수되는 유기동물들은 완주군에 위치한 2곳의 위탁업체로 전달돼 보호·관리한다. 용진읍 연합동물병원과 봉동읍에 위치한 태산 유기동물 임시보호소에서 말이다.

이날 찾은 태산 보호소는 모두 100여 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었다. 강아지부터 성견까지 다양한데, 사고를 당했거나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길을 잃어버렸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이곳에 들어왔다. 최 소장은 이날 아침에도 소양에서 커다란 세퍼트 한 마리를 데리고 온 참이었다. 마을에 개가 돌아다니는 민원이 완주군으로 접수돼 위탁업체인 최 소장에게 전달된 것이다.

"유기견을 발견하고 완주군청이나 보호소로 연락을 하면 저희가 출동해요. 쉬는 날이 없죠. 밤낮도 없고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출동해야 해요. 돌아다니게 둘 순 없으니까요. 유기견을 만나면 저자세를 취해 경계를 풀 수 있게 해요. 눈곱도 닦아주면서 간식을 주며 차에 태워 보호소로 데려오는거죠. 무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보호소에 머무는 유기견들의 보호기간이 경과되면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태산의 경우 안락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최 소장이 개인적으로 구출한 유기견의 경우 보호소에서 생활한지 10년 정도 됐다.

"각자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는 개들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최대한 돌봐주려는 마음으로 노력하는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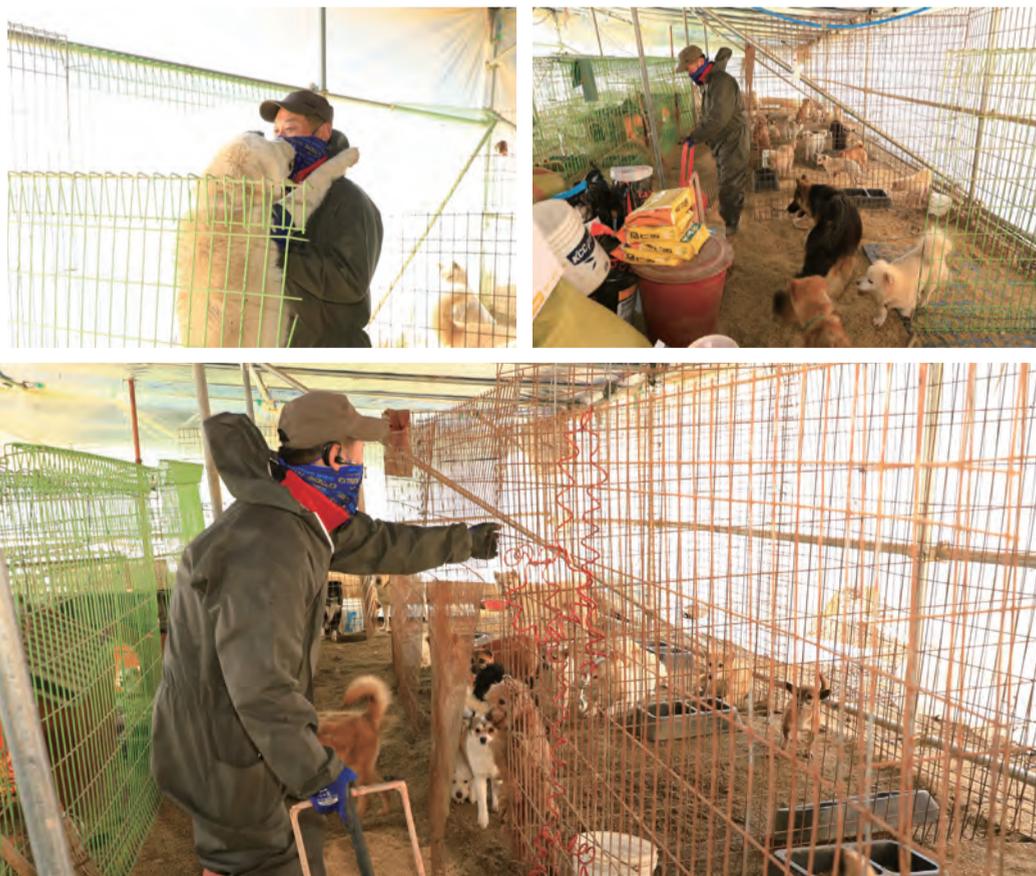
현재 보호소는 땅 주인의 허락하에 최 소장이 직접 나무가 있던 곳을 베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다져 마련한 보금자리이다. 유기견을 키울 수 있는 곳들을 돌아다니다가 정착한 보호소가 이번이 벌써 11번째다. 그가 소유한 땅이 없다 보니 건물을 세울 수 없어 완주군의 지원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혼자 운영하다보니 힘든 점이 많아요. 시간에 쫓겨 개들에게 더 신경 써 줄 수 없어서 안타깝죠.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개를 구출해야 하고, 개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정리도 해야 하고 밥도 줘야죠. 정말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요."

최 소장은 유기견에 대한 편견을 버려달라고 당부한다. 동물을 사는 것이 아닌, 보호소에서의 입양도 적극 권장한다.

"동물을 키우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해요. 절대 버리면 안되죠. 강아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곳에서 데려가주면 좋겠어요. 유기동물 보호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 부터도 더 노력해야죠. 가끔씩은 개 사료를 지원해주는 후원자도 있어요. 미미하지만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태산보호소에는 100여마리의 유기견이 최상영 소장의 돌봄을 받으며 보호되고 있다.





완주군 희망발전소 1호점 직원이 완주봉동우체국에서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 지역사회 보답하는 마음으로 '무료방역'

### 완주군희망발전소1호점 방역서비스 유동인구 밀집지역 위주 무료 활동

지난 5일 오전 봉동우체국 앞.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 다다른 요즘, 전국 읍·면 우체국에서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이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 상승해가고 있는 가운데 완주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자처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완주군희망발전소1호점에서 근무하는 방역작업자다. 이들은 2월 말부터 늘어난 주민량과 함께 완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역작업을 돕고 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알려진 완주군희망발전소1호점은 지난해부터 방역사업을 해 온 방역전문업체이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장애인 직원은 근무하지 않고 비장애인 직원 3명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세 명 중 두 명은 유료방역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무료방역을 하고 있다. 이날 봉동우체국을 찾은 박상진(38)원장은 "무료방역은 일정이 안 겹치는 선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인 가정집을 제외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고 있다. 오늘은 용진우체국, 봉동우체국, 봉동에 있는 동전노래방과 당구장 일대를 돌아다닐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역이 이뤄지는 과정은 간단해보인다. 작업자가 커다란 소독약을 들고서 구석구석 뿌려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나 이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이 자주 머무는 곳, 손잡이, 철로 된 것에 대한 소독이다. 사용되는 살균제는 '바이오클 퓨어'로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약품이다.

희망발전소의 방역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봉동우체국 유기환 국장도 바닥청소에 나섰다. 락스 세제를 물로 희석한 다음 바닥을 닦으며 소독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는 "지난 금요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나와 줄 서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데 희망발전소에서 무료로 방역해줘 고마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작업자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완주군희망발전소1호점도 작업자 혼자 40호를 반복적으로 돌아다닐 정도로 분주하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이니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것들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국에 있는 직업재활시설도 무료방역 시범을 보이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인 요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마스크 가격이 올랐을 뿐 아니라 방역기구 가격도 올랐다고. 박 원장은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무료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게 정도를 넘어선다면 무료로 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아직 완주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 완주군희망발전소1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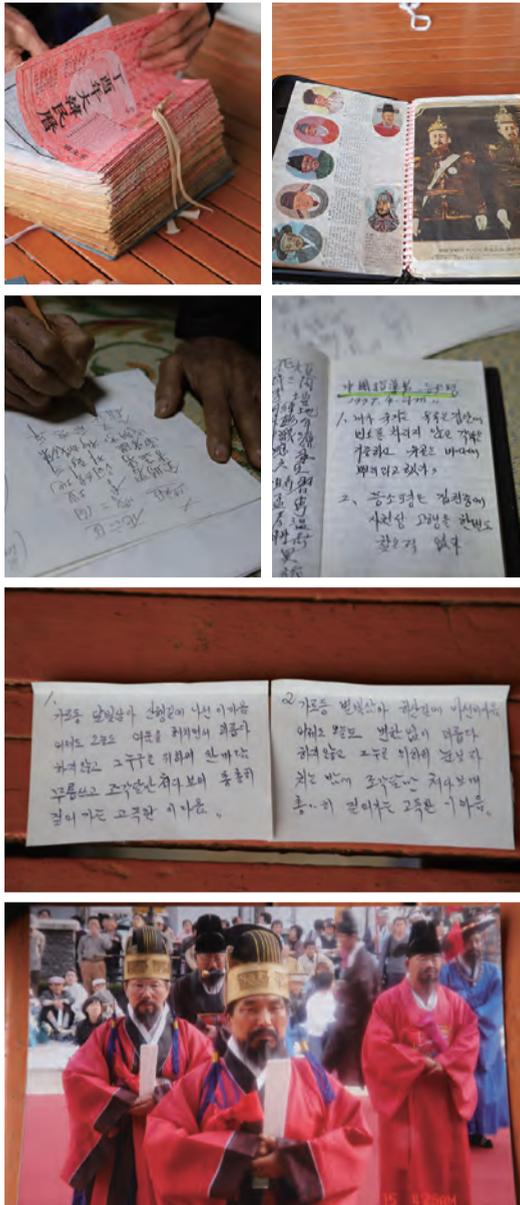
- 주소\_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 1길 16
- 전화\_ 063)262-1600

완주군희망발전소1호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으로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급여를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제공하는 곳이다. 또한 현수막 등 홍보물 인쇄 및 광고대행과 방역서비스 사업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최종규 어르신의 오래된 집 마루에 앉아 한나절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스마트폰 볼 세도 없이 그저 순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것을 보았다. 어르신의 이야기 덕에 집으로 돌아와 나의 오래된 수첩을 꺼내 보았다. 중, 고등학교 시절 빼곡히 적어 놓은 온갖 글들은 대부분 영화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영화감독, 영화배우 이름, 영화제목 들을 깨알같이 적어놓고 외웠다. 토요일마다 시작하면 켜켜이 TV앞에 앉아 오프닝 화면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읊어대며 가족들 앞에서 잘난 체를 하곤 했다. 날아가는 생각들을 수첩에 적어 놓기 바빴던 그 시절이 그렇다. 최종규 어르신은 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도 기록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모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용진읍 신지리 신지동마을의 최종규 어르신(85세)은 300년 동안 8대를 이어 이 마을에서 살고 계신 한마디로 마을의 터줏대감이다. 마을이 생겨난 연원과 최씨, 임씨, 이씨 등이 마을에 터를 잡고 살게 된 내력을 어르신은 오롯이 알고 계신다. 옛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이치와 변화를 중요하게 여겨 일 년 동안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일, 절기, 기후변동 등을 책으로 엮어 펴냈는데 그것을 책력(冊曆)이라고 한다. 누적된 기록은 위대한 발견을 낳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달력도 책력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아버님 돌아가신지 47년 되었는데, 그 당시 책력이라는 게 있어.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부터 모아오시던 것을 내가 이어서 매년 모으고 있어. 그거 아무나 못 보는 것이여. 우리 아버지가 처음 사서 모으던 것이 1964년이야. 책력에는 좋은 것은 다 있어. 농사짓는 사람들은 필수였어. 아버지 영향을 받기도 했지. 아버지도 생전에 책을 많이 읽으셨거든. 그때는 군에 갔다온 사람, 한문 아는 사람이 이장을 했어. 군에서 나오는 공문들이 다 한문이었어. 그때만 해도 한글도 모르는 판에 한문 아는 사람이 드물었어. 1950년 5월 4일 졸업을 하고 중학교 다니다가 6.25가 터지면서 학교를 못 다닌 거야. 전쟁 통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잖나. 학교를 못갔으니 야학교(양당이라고도 불렀다)에서 공부했지. 거기서 한문을 알려주던 분이 신가송 선생이었어. 15살 이후 23살 군대 가기 전까지 신가송 선생님 밑에서 한문을 배웠어.” 어르신께서 읽고 모아두시는 것은 책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책력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셨다면 신문읽기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접했고 복잡다단한 세상의 흐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던 시절 어르신은 신문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안목을 넓히셨고 그중 인상적인 지면들은 아홉 권의 스크랩북에 꼼꼼하게 편철되어 있었다. 1981년 9월 5일부터 시작한 일이다.



맨 위부터 1964년부터 모아온 책력과 스크랩. 좋은 구절은 꼭 수첩에 써놓아 둔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노래말. 2005년 전라감찰사 행렬 재현행사에서 20대 할아버지인 최유경 전라감찰사 역으로 발탁됐던 최종규 어르신.

“한 권 당 일이 년이 소요되는데 내가 열 권까지는 만들어놓고 가야지, 내가 신문을 60년 가까이 봤어. 그런데 보고 내쏘고 내쏘고 하니 아무 근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 시작한 거지. 신문보고 느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첫 페이지가 일본 침략에 대한 것이었어.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이야기로 만들었지. 이렇게 자세하게 신문에 실린 것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마음으로 시작한 거지. 신문은 조선일보가 잘 만들기는 해서 오랫동안 봤는데 작년에 끊었어. 왜 그런고 하니 너무나 우측으로 치우쳤어. 정치면은 일절 안 보게 되더라고. 하지만 사실은 꼭 챙겨봤어. 그런데 배렸어. 공정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

어르신의 신문 스크랩북에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부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같은 오래된 정치인의 사진들이 있었고 이리역 폭발사건, 88

서울올림픽, 황영조의 금메달 사진 등 현대사를 수놓은 여러 인물과 사건들이 망라되어 있다. 어르신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을 외우고 계셨고 케네디와 후르시초프 시절에 냉전 시대가 이어진 이유,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시절을 거치며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의 근거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셨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스물다섯에 마을 이장을 거쳐 열 가지가 넘는 사회적인 이력을 만들어가며 살아오실 수 있었던 힘은 어쩌면 스스로 배우고 읽고 그것들을 모아두는 오래된 습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동안 농사짓고 먹고 살았지. 인삼재배도 하고 누에도 키우고 젓소도 한 십 년 키웠어. 지금은 대추농사 지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지. 스물다섯 살에 이장 일을 보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 신지리 조합장, 신협 이사장, 윤강회 회장, 농촌지도자회장, 동악동민기념사업회 용진지국장, 전라북도 국사편찬위원 같은 일들을 했어. 내가 외부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안식구가 고생을 많이 했지.”

오래된 사진첩에서 본 어르신은 풍채가 참 좋으셨다. 2005년 전라감찰사 행렬 재현행사를 했을 때 어르신의 20대 할아버지인 최유경 전라감찰사 역으로 발탁된 것도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옛 사람들의 호방하고 품격 있는 풍채를 가지셨던 이유가 가장 컸을 것이다. 건강이 나빠지고 네 번의 수술 끝에 살도 많이 빠졌지만 어르신은 두 번째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고맙게 살고 있다고 하셨다. 어르신의 스크랩북을 다시 훑어보다 정갈한 글씨가 써진 종이를 발견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십년동안 산소들 다녔어. 땀기다 봉계로 노래를 하나 지어야 겠더라고. 산소 오가면서 드는 생각을 노래로 만든 거야. 이렇게 가삿말을 적어 둔 것은 나중에 나 죽으면 산소 비석에 이 가삿말을 새겨 달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남겼지.”

오랜 동안 해와 달을 살피고 그 변화를 기록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 써내려간 귀한 가삿말이다.

『1절: 가로등 달빛 삼아 산행길에 나선 이 마음  
어제도 오늘도 어둠을 헤치면서 괴롭다 하지 않고 그 누구를 위하여 찬바람 무릅쓰고 조각달만 쳐다보며 총총히 걸어가는 고독한 이 마음  
2절: 가로등 별빛 삼아 하산길에 나선 이 마음.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괴롭다 하지 않고 그 누구를 위하여 눈보라 치는 밤에 조각달만 쳐다보며 총총히 걸어가는 고독한 이 마음』<sup>1)</sup>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장이경의  
삼익풍경

신지동 마을  
최종규 어르신

아랫지동리  
태조대감의  
세기상임기  
리기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사회서비스센터는 치매,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다.

## 자활공동체로 출발 모범적 사회서비스센터로

치매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보살피며 ... 헌신적인 마음가짐 갖춘 사회복지사 필요



15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사회서비스센터

봉동읍 성덕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이곳에서는 치매,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다. 자활공동체로 시작한 이후 성장을 이뤄내며 다양한 사업을 뻗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기업정보**

- 연락처 063)285-2325
- 주소  
완주군 봉동읍 서정길 24-10

**근로 조건**

- 모집분야: 사회복지사
- 급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 근무시간: 09:00~18:00  
(시간외 수당 지급)

드림사회서비스센터는 어떤 곳인가.

첫 시작은 2007년 9월경이다. 완주지역자활센터에서 나온 7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출범한 자활공동체가 그 출발이었다. 노인종합돌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토대로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다. 원래는 일반협동조합이었는데 이제는 사회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센터 건물을 짓게 된 계기가 있다.

장기요양사업을 새롭게 하게 됐는데 그중 주간보호사업은 건물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2017년 3월에 문을 열고 사무실도 갖추게 되었다. 현재 170여명의 구성원들이 일하는 센터로 자리 잡았다.

근무환경에 대해 알려 달라.

타 기관하고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운영한다는 거다. 그래서 요양보호들에게 다양한 일거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일이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드물다. 근무시간은 이용자의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이곳엔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170여명의 구성원들 중 요양보호사가 80%를 차지한다. 이외에 사회복지사, 활동보조인, 간호조무사가 있다. 연령대는 50대 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분포는 완주, 전주 가 많다. 이들 중 자활센터에서 근로능력을 키우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일을 잘 하고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헌신적인 마음이다. 어르신 이용자들의 욕구에 잘 맞춰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사회복지사는 욕구를 파악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로 출발해서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어떻게 보면 급성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이 체계화되어 모범적인 사회서비스센터가 되길 바란다. 또한 현재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일하며 지역사회에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 



# 어른도 아이도 함께 노는 '차별없는 놀이터' 만들어요



## 2020년 아동친화도시 2.0 놀이편 장애·비장애 모두에게 평등 '유니버설 놀이터' 수립 계획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면 아이들이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아이와 가족이 함께 놀수 있고,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 바로 '유니버설 놀이터'가 그리는 모습이다. 완주군이 평등한 놀이문화를 위해 다시한번 머리를 맞댔다.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 2.0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에 따라 아동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친화적 놀이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앞서 도시공원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놀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환경 분석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취합하고 놀이터 조성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지난 2월 12일,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놀이터 조성 실태파악을 위해 삼례상생공원 등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3월까지 완주군 내 놀이터 전수조사를 토대로 환경 분석, 어린이·청소년의회 워크숍 등을 진행할 것이다. 이후엔 놀이터 콘셉트를 구상한 후 중간보고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버설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놀이터 조성 실태파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놀이터를 점검 할 때 쓰이는 지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다. 안전사고 최소화, 아동이 해결할 수 있는 위험요소, 지역특성을 고려한 놀이 환경, 자율적 참여 등이다. 특히 디자인을 구상할 땐,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된다. 또, 장애아동을 비롯한 소수계층 아동도 함께 놀이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기본계획을 설계할 예정이다.

기존의 획일화된 놀이터의 개념에서 벗어나 어른과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상상해보자. 모두가 하나 되어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 이것이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의 놀이터이다.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아동친화적 놀이터 공간 조성은 군민이 직접 제안한 아동친화도시의 핵심 정책이다. 놀이터 하나를 만들더라도 명품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에 맞춰 오는 2023년까지 350억원 규모를 집중 투입하는 30대 중점과제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베리베리굿~ 6개월 연구끝 재출시 맛이 더 좋아졌네!



⑬ 블루베리

### 인씨네농장

- 갈아만든 블루베리즙
- 1포 (100ml) : 2,800원
- 25포 1박스 : 70,000원
- 블루베리잼
- 떠먹는 블루베리잼(310g) 13,000원
- 발라먹는 잼(300g) 12,000원
- 씻어나온 냉동 블루베리 (500g) 10,000원

※전화문의 : 010-3070-8124

※인씨네농장의 모든 블루베리제품은 직접 농사지은 100% 무농약인증 블루베리를 이용해 만듭니다. 블루베리 생과 구입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언제부턴가 TV를 틀면 건강에 좋다는 각종 슈퍼푸드의 효능과 먹는 법을 소개하는 것이 단골 소재가 됐다. 마스크에 소개된 슈퍼푸드는 한철 벚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유행했다가 금방 사라지곤 한다.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효과와 피로회복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꾸준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이 아니면 챙겨 먹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슈퍼푸드인 블루베리가 그 중 하나다. 블루베리에 대해 검색해보면 각종 효능과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가 쏟아진다. 이렇게 몸에 좋은 블루베리는 수확철이 짧아 제철 과일로 먹기보다는 즙이나 냉동된 상태로 먹을 때가 더 많다.

완주에 와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귀농 5년차 서미옥 대표를 알고부터 이전까지 먹었던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를 먹지 않게 됐다. 한번 맛있는 것을 먹어 보면 그 뒤로는 맛의 기준이 생긴다. 블루베리 수확철에 인씨네 농장에서 직접 딴 블루베리 생과를 먹어보고 블루베리가 이렇게 크고 달콤한 과일이었나 감탄했던 적이 있었다. 생과가 맛있으니 이걸로 만든 즙도 맛있는 것이 당연했다.

인씨네 농장 블루베리즙은 맛도 맛있지만, 걸쭉한 질감에 반할 수밖에 없었다. 생과일 스무디를 마시는 것처럼 걸쭉하고 검붉은 보라색의 진한 블루베리즙을 마시고 있으면 블루베리의 모든 건강한 성분을 그대로 몸으로 흡수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농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했던 블루베리즙을 작년 말부터 완주로컬푸드에서 볼 수 있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에 오랜만에 인씨네 농장을 찾아갔다.

“나는 아파도 웬만해서는 약을 잘 안 먹는데, 그것처럼 애들한테 함부로 약 치는 것도 싫어해요.”

친환경 농사가 힘들지 않냐고 묻자 서미옥 대표는 이렇게 답한다. 거창한 말들로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와닿는 명쾌한 답이었다. 블루베리 나무를 우리 애들이라고 말하는 농부답게 인씨네 농장은 엄마 같은 손길로 가꿔온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인터뷰하러 간 날에도 서미옥 대표는 해충을 막기 하기 위해 하우스에 일정 높이의 방충망을 직접 설치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뭐든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는 그녀는 작업장의 보도 블록도 직접 깔고 자잘한 전기작업이나 수도 연결 등도 직접 했다고 한다.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재밌어서 힘든 줄도 모른다고 답하며 환하게 웃는다. 그녀에게 인씨네 농장은 최고의 일터이자 놀이터인지도 모른다.

서 대표는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블루베리 생과를 이용해 즙을 만드는 데도 여러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블루베리는 씨까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즙은 과육은 버리고 즙만 짜내거든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손실되는 게 안타까워서 통째로 먹을 방법을 찾았어요.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고, 제조와 판매 허가를 받은 건강원을 찾아서 1년 정도는 이곳을 통해서 만들었죠. 갈아만든 블루베리즙이라는 이름처럼 진한 맛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가끔 건강원이 바쁠 때 품질이 떨어지는 적이 종종 있었어요. 앞으로도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즙을 생산할텐데 이런 문제를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직접 즙을 생산하기로 결심하고 2018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다. 완주로컬푸드 농업인 가공교육을 받았고, 그 해 블루베리 잼을 먼저 출시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식품 가공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품질을 균일하게 하면서 영양을 파괴하지 않는 저온살균법을 접한 서미옥 대표. 6개월 여 연구 끝에 마음에 드는 품질을 찾은 그는 현재 완주로컬푸드 가공협동조합에 가입해 구이가공센터에서 생산 중이다.

“가공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이곳에 있는 여러 설비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제품에 맞는 방식을 찾았어요. 고가의 설비를 먼저 구입하기 보다는 이곳을 이용해 다양하게 써보고 제품을 출시해서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 가공을 시작한다면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농부가 직접 가공을 한다면 먼저 원물(농산물)의 경쟁력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원물이 맛있다면 그걸로 만든 가공된 음식도 맛있을테니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해요.”

인씨네 농장의 블루베리즙은 집에서 생과를 갈아서 만든 것보다 진하고 부드럽다. 블루베리 씨앗을 곱게 가는 게 기술이라고 한다. 직접 생산하면서 소량의 비정제 원당과 레몬이 첨가됐다. 식품가공기능사를 공부하면서 안토시아닌

색소가 산을 만나면 영양소 파괴가 적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레몬을 넣고, 블루베리 숙성을 돕기 위해 비정제 원당을 첨가했다고 설명한다.

서 대표는 뚝심있게 밀어붙이는 듯 보이지만 오랜 기간 준비한 뒤, 준비를 마쳤을 때 망설임 없이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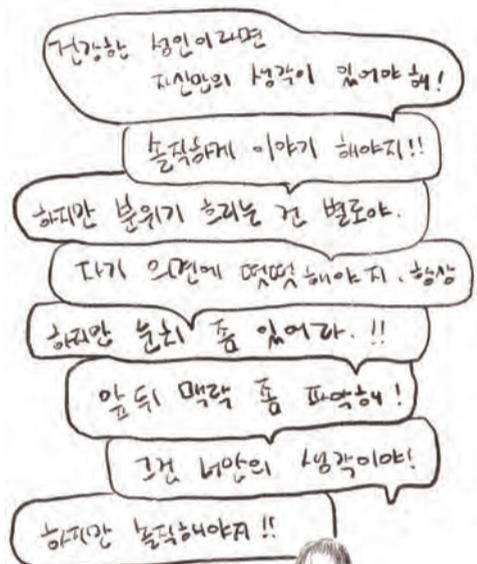
“저는 항상 예전으로 돌아가도 늘 같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고 후회없이 일하려고 해요. 농사는 늘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고, 지금은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나는 그녀와 얘기를 나누며 의욕이 있는 사람과 욕심이 앞서는 사람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알게 됐다. 오랜만에 만난 서 대표는 여전히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보여줬다. 그런 서 대표가 갈아만든 블루베리즙은 블루베리 본연의 효능뿐만 아니라 이런 그녀의 건강한 에너지를 함께 느끼며 마실 수 있는 진정한 건강음료일 것이다.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 과일주스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는데 믹서기를 꺼내 갈아마실 시간이 없다면, 인씨네농장 갈아만든 블루베리즙이 좋은 대안이다. 리뉴얼되고 더 맛있어진 블루베리즙은 완주로컬푸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글·사진=조울 조울은 2017년 말 완주로 귀촌, 고산미소시장에서 가공품을 판매하는 상점 율소리에를 열었다.

## 매일설레

### #11 자고로



설레는 완주삼레에 귀촌한 4년차 청년이다. 그림 그리는 일을 주로 하지만 필요하면 가리지 않고 다 한다.

2019년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부모님 안부확인 서비스

완주안심콜

1811-6999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완주군 문화사업에 미친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없는 완주 문화인 회의'가 열렸다.

**완주문화도시추진단**

대표없는 완주문화인회의, 코로나19 피해 대책 준비 논의

**“프리랜서 공동체 활동 위축, 긴급지원 필요”**

지난 6일 오전 10시 삼례에 위치한 막사발박물관에서 '대표 없는 완주문화인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완주군 문화사업에 미친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 둘째 날인 이날은 완주문화도시추진단 오민정, 전성호 담당자와 지역의 요리문화공동체 '양현동지'의 구성원 강상미(52)씨 외 2명, 공방 '스며들다'의 대표 황미선(41)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강사 이자영(35)씨가 함께 자리했다.

오민정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파악 중이다.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프리랜서나 공동체들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외부 강사 이자영씨는 “모든 수업은 개학 이후로 진행해달라고 통보 받았다. 학생들 모집기간도 미뤄진 상황”이라며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수익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공방 대표 미선씨는 이번 사태에서 거론되는 한 종교단체를 설명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에 논란이 된 특정 종교집단이 문화센터를 연계·운영하다보니 한쪽에서는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종교집단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공방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게 있더라”고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의 방식과 과도한 공포감에 대한 문제성도 제기됐다. 요리문화공동체 양현동지의 강상미(52)씨는 “언론에서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해 더 불편하게 만들고

학원운영- 생계형 강사  
수익자체가 없는 상황

소규모 행사진행 가능토록  
신뢰성있는 보건시스템 필요

있다. 특히 매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성호 담당자는 이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전혀 관련 없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따돌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산업 종사자 중 많은 수가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발언자는 “대출같은 금융제도도 사업자 없는 사람들은 사각지대라 사실상

받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없다”며 “당장 소액의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졌다. 문화관련 공공근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 및 제안이 쏟아졌다. 먼저 3~4명 정도의 소규모 행사 진행이 가능토록 행정 및 문화예술분야 중간지원 조직에서 신뢰성 있는 보건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개인 혹은 2~3인이 활동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 지원사업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지역 내 청년, 기획자, 문화예술활동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크리에이티브 활성화 사업지원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공감했다.

전성호 담당자는 “앞으로도 이어서 몇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생계형공동체, 문화공동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날 예정”이라며 “현재 자금을 지원해주는 건 어렵지만 콘텐츠를 축적해줄 수는 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공유문화자산 조사원 모집 ~ 3월18일까지, 3주간 활동**

완주문화도시추진단이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활동가 및 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완주 공유문화자산 조사원을 모집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문화인력에게 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의 공유문화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원은 완주군 내 13개 읍·면별 공유공간을 조사하고, 15개 이상의 공간을 발굴하는

역할이다. 공유공간은 주민 및 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가진 기관 및 시설, 카페 등 민간운영 공간을 포함한다.

- 모집기간\_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 활동기간\_ 3월 23일~4월 10일(3주)
- 활동비\_ 40만 원
- 문의\_ 완주문화도시추진단 홈페이지  
www.wanjuculture.com  
063-291-5599, 070-4470-2169

# 꼬리명주나비



이근석의 완주공동체 이야기

나비의 나는 모습은 환상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양이 현란할수록 앉아 있는 모습보다는 날개를 펴고 곡예하듯이 나는 모습은 그 주변의 풍광을 누를 만큼 시선을 뺏습니다. 또 접어 있는 날개 속에 숨기듯이 가진 무늬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나비들은 대개가 모여 있는 것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짝을 찾기 위해 몇 마리가 엉켜 있는 경우는 있지만 집단을 이뤄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우연찮게 수분을 취하기 위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만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고 그 광경을 보는 것은 행운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숙주식물을 알아 이를 조성해서 나비 정원(?)을 만드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이 꼬리명주나비입니다. 숙주식물을 조성해서 나비를 모이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자연스럽게 숙주식물이 자생하여 나비를 불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봄이 옵니다. 이제 주변에서 나비가 날아다니



사진출처:국립공원공단 생물중정보

는 모습을 보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이지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 총회, 교육, 하물며 방문을 자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농촌 마을의 어려움은 가뜩이나 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방문객을 받을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지경입니다.

‘홀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요즘에는 ‘모이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로 변했습니다. 인심도 따라서 흉흉해 질 지경입니다. 농촌의 자랑거리인 공동체 문화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만큼이나 네 것 내 것이 없이 모두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에서 알게 된 것은 이웃이 알지 못하게 생활

하는 것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장해서 이웃에게 접근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다보니 집단적으로 전염이 발생하게 된 꼴입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신을 위장해서 생활해 온 것은 이후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사라졌으니 신뢰가 깨졌으니 지역에서, 동네에서 생활하기 쉽지 않겠지요.

각자의 자라온 배경이나 경험을 내 놓고 조금씩 알아 가면서 힘을 합쳐 왔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서로의 의견이 틀려 갈등이 있었지만 신뢰까지 금이 가지는 않았습다. 이는 더 나아가 당사자인 공동체 뿐 아니라 주변에까지 파급이 되어 불신의 시대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일이 생기면 큰 일입니다.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고 아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온 경험의 소중함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용기를 주면서 이 뒤숭숭한 분위기를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글쓴이 이근석은 귀촌해서 고산 성재리 화전마을에 살고 있다. 전북의제21 사무처장을 거쳐 지금은 소설굿즈센터장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 휴먼스 오브 완주

### “스물다섯에 전주서 여기로 시집왔어”



“원래 전주에서 살았는데 여기로 시집왔어. 스물다섯에 왔는데 시골에서 고생 깨나 했지. 중앙시장서 회사 다니고 반장도 했어. 백 명되는 사람들한테 기술도 갈쳤어. 인기도 좋았지 내가. 사람들이 곱상하게 생겼다 그래 나보고.”

(좀 전까지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밭)에다가 양과 쪼개 지어놔. 지금은 옷거름 주는 거야. 일 안하면 고민만 생기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폼지락 폼지락 하는 거야. 봄 되면 팔기도 하는데 얼마 안 돼. 그걸로 용돈벌이나 하는 거지 뭐.”

“우리 마을이 한 80호는 돼. 큰 마을이야. 여기 큰 나무가 있는데 1년 마다 한 번씩 고사를 지내. 설 쇠고 보름 될 적에 지내지. 그전에는 담 쌓으면 와르르 무너지고 난리였는데 이제 안 무너지. 신기혀.”

- 고산 안남마을 이길순(85)

## 마을소식

###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고용노동부와 완주군이 주최하고 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와 완주군로컬잡센터가 주관한다.

기간은 오는 4월 3일 금요일까지, 모집 대상은 농산물 가공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구체화된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완주군 거주 (예비)창업자이다.

모집인원 10명에게는 창업교육과 멘토링 제공, 초기사업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vad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완주군 로컬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_ 063-262-1725

## 동상면 수만리 개천에서 용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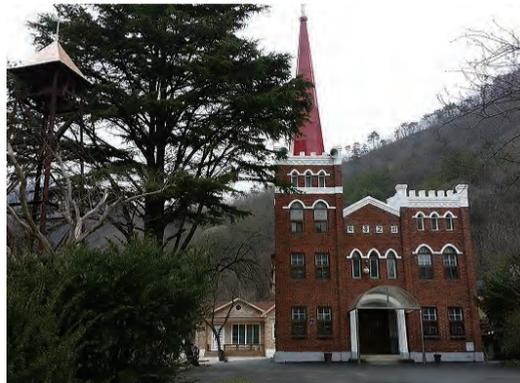


이승철 향토사학자가 들려주는 완주이야기 (90)

동상면 지형 대체로 10산(①운암산 ②왕사봉 ③장군봉 ④운장산 ⑤연석산 ⑥원등산 ⑦위봉산 ⑧동성산 ⑨학동산 ⑩대부산), 4천(①대아천 ②용연천 ③사봉천 ④수만천) ‘쓸 용(用)’자 지역으로 보면 무난하다.

동상면은 산골 중 산골 ‘깡촌’이라 할 수 있는 곳, 옛날 무학대사(?)가 지나며 최씨 묘지와 수만리를 보고 ‘좋은 인물 날 명당’이라했다는데, 근 30년 사이 산자수명한 이 곳이 외부로 널리 알려졌다.

2019년 말에 이어 2020년 초 검찰과 완주군청 인사에서 수만리 출신이 큰 자리에 올라 더욱 눈길을 끈다. 2020년 1월 13일자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이동에서 수만리 입석마을 심재철 씨(51)가 전국 검찰청 특별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됐고, 다자미 전영선 씨(56)가 완주군청 행정복지국장(56)에 발탁됐으며, 지난해 승진 후 교육 중이던 다자미 박병윤 씨(51)가 문화관광과장 보직을 받았다.



이들은 동광초등학교 출신으로 자라면서 소양중, 전주 동암고, 전라고 등 상급학교를 다니며 실력을 쌓았고, 공직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다.

▲심재철 부장은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강력통’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절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을 지냈다.

▲다자미 전영선 행정복지국장(56)은 지역경제과장, 재정관리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등 지역 발전 핵심부서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아 2012년 지역경제 발전에 공이 커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았고,

2017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이 표창하였다. ▲지난해 사무관 승진 후 교육을 마친 박병윤 과장은 고향 선배 전영선 국장 뒤를 이어 문화관광과장이 되었다. 박 과장은 ‘2021 완주 방문의 해’ 실속을 채우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다.

▲동상면 사봉리 목계마을 출신 임동빈씨가 환경과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완주군 재정관리를 책임지는 김은중 재정관리과장은 신월리 원신마을 출신이다. (김재호 기자: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ijan.kr> 참고) 군청 18과장 중 동상 공무원이 많다.

△입석마을 김종수 씨(바위산 가든)는 2억 5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땅 500여 평을 마을에 내 놓았으며(2020. 1. 22 완주전주신문). 학동 여산재(餘山齋)도 지켜 불만한 건물이고, 학동교회는 20세기 초 마로덕(馬路德:L. O. McCutchen 1875-1960) 선교사가 개척했다. 학동산~대부산 줄기는 동상면 중앙부 남에서 북으로 뻗친 산맥에 해당하다. 저수지에 물이 차자 ‘수만리(水滿里)’ ‘음수동(飲水洞)’ 지명 신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아들 많이 낳고 싶은 사람 다자미(多子美)로 이사하면 좋다. 물가 식당은 값을 더 내려 외부 사람 모으는 게 사는 길이다.

/국사편찬위원회조사위원(esc2691@naver.com)·칼럼니스트

### 새로 왔어요

## “올해 아니면 못 올까봐 귀촌 결심했죠”

### 완주군 귀농인의 집 김성희 씨

완주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귀농인의집)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다. 아이 셋을 데리고 용감하게 완주로 온 김성희(41)씨가 그 주인공이다.

2월 26일 오전, 귀농인의집 앞에서 단란한 가족이 보인다. 세 아이의 엄마 성희씨가 분주하게 이삿짐을 정리 중이다. 수원에서 완주로 온 그는 “올해가 아니면 못 올까봐, 더 늦기 전에 귀촌을 결심했다”며 웃었다.

성희씨는 귀촌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지역에 문의를 했다. 그중에서 완주귀농귀촌지원센터가 가장 적극적인 인내를 했고, 완주로 오기에 별다른 제약도 없었을 뿐더러 시설도 잘 갖추고 있었다. 그는 “귀촌한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보니 우선 혼자 내려왔다. 이제 1년 동안은 주말부부로 지내야 한다”고 말



했다. 남편과 떨어져 혼자 아이 셋을 데리고 오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터. 성희씨는 어떤 이유로 귀촌을 선택한 것일까. 그는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 낳으면 하고 싶었던 것도 잊고 살곤 한다. 제가 엄마가 된지 올해 10년 됐다. 이제 아이들이 더 크면 시골로 못 갈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며 “다행히 신랑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서 용기를 가지고 오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그는 완주군귀농귀촌센터에서 농사 기초 교육을 받으며 귀촌계획을 더 구체화 할 예정이다. 나중에 정착할 지도 모르니 말이다. 씨 뿌리는 것부터 차근차근 배우며 미래에 가꿀 텃밭을 상상해보는 성희씨. 얼굴에 웃음이 퍼진다.

# ‘공포바이러스’ 너무 움츠리지는 말자

농/촌/별/곡



차 남 호

기세 좋게 첫발을 뗐던 <농한기강좌>가 첫 강좌를 끝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직후다. 얼마나 공을 들여 준비했든가, 그리고 첫 강좌 이후 남은 네 차례의 강의에 쏟린 못사람들의 기대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없지 않았으나 어이하랴. 방역당국이 다중집회를 삼가길 권고하고 사회전반의 움직임 또한 그러하니 눈물을 머금고 단안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보름, 상황은 심각 그 이상이다. 지금 농한기강좌가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온통 혼돈과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형국이다.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비롯된 ‘공포 바이러스’에 온 사회가 세파랗게 질려 있다. 방역당국은 줄곧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지침을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강한 사람은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길게 늘어선 구입 행렬은 무엇이며 ‘마스크 5부제’라는 해괴한 시책은 또 무엇인가. 이 모두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 엄청나게 몸집이 커진 눈덩이마냥 부풀어 진 공포 바이러스 탓이지 싶다.

어차피 농한기이고 ‘집콕’ 신세일 수밖에 없는 농사꾼이 늘어놓는 세상물정 모르는 한가한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따금 장보러 들른 읍내 마트에는 하나같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 물결. 웬지 섬뜩해온다.

이같은 사회적 공포심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리돼 건전한 시민행동지침으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다. 아직은 상황이 심각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고비를 넘겨 바이러스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는 가동중단, 조업부진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하겠지. 그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대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고.

저마다 양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다 보면 사태도 차츰 누그러질 게다. 어젯밤 뉴스에는 ‘확진자수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는 반가운 진단도 나왔다. 물론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하겠지만 희망의 소식이 쌓이다 보면 공포 바이러스도 머잖아 물러갈 것이다.

문제는 이 공포심리에 기생하여 사익을 쫓는

혐오와 배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방역이나 보건을 빌미로 인권침해에 둔감해지는 경우다.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 정치권의 저열한 선동정치는 몹시 우려스럽다.

어쨌거나 코로나19 사태가 빚어진 지 두 달을 지나고 있다. 처음엔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해서 머잖아 수그러들겠거니 싶었다. 대구-신천지를 계기로 확산세가 폭발하는 와중에도 우리 동네는 확진자 제로의 청정지대인 것에 마음이 놓였다. 물론 공포 바이러스는 한적하고, 인구밀도 낮은 시골마을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화병으로 먼저 죽을 것 같은 갑갑함이라니. 그 래 “이럴수록 움츠러들지 말고 발산해야 한다”고 의기투합한 몇이서 판을 벌였더랬다. 그제 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다.

말이 좋아 ‘사회적 거리두기’지 실상은 ‘강요된 집거’ 아니던가. 시골 사는 덕분에 활개치고 사는 나도 그걸 실감한다. ‘집콕’이 길어지면서 ‘집밥’ 해먹는 이들도 많아졌는지 얼마 전부터 직 거래 쌀 주문이 크게 늘었다. 준비한 물량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렇다고 수입이 늘어날 일은 없고, 너무 일찍 쌀이 떨어지면 공급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이래저래 세상사 쉽지 않다. 정도껏 하자.

/비봉 염암마을

## 마을소식

씨앗은 농부로부터

**칠성초**  
맛: 중간 매운 맛 / 맵고 달착지근함  
크기: 음성채래 중간크기  
특징: 과육이 두꺼우며 알린 후 색이 좋음  
대양초: 가능

**음성채래**  
맛: 약간 매운 맛 / 맵고 달착지근함  
크기: 18-20CM  
특징: 과육이 두꺼우며 줄무늬 있음  
대양초: 어려움

**청룡초**  
맛: 중간 매운 맛 / 맵고 달착지근함  
크기: 음성채래처럼 큼  
특징: 과육이 도톰하며 굵이 보육함  
대양초: 어려움

**금배향각초**  
맛: 단맛 / 피맛에 가까움  
크기: 연두빛으로 자라며 길이가 짧음  
특징: 아삭이 고수로 좋음  
대양초: 어려움

**사근초**  
맛: 강한 매운 맛 / 청향초  
특징: 수비초보다 길쭉하며 색이 탁함  
대양초: -

**수비초**  
맛: 중간 매운 맛 / 맵고 단맛의 조화  
특징: 청향고수로 가능하며 고수가루 색이 아주 고움  
대양초: 가능

**토종 기타작물**

<p><b>단호박</b> 씨드림에서 받음</p> <p><b>토마토(진안토마토)</b> 모양이 크고 주황색 주글주글하고 가운데로 모아짐</p> <p><b>가지(쇠불가지)</b> 2013년 자연농모임에서 받음</p> <p><b>오이(노각오이)</b> 2013년</p> <p><b>오이(청주오이)</b> 씨드림에서 받음</p> <p><b>호박</b> 대물림</p> <p><b>땅콩</b> 2005년 동네지인(씨밭야20년 이상 재배)에게서 받음</p>	<p><b>토란</b> 대물림(친정)</p> <p><b>완두콩</b> 씨드림에서 받음</p> <p><b>참외(사과참외)</b> 2017년 지인에게 받음</p> <p><b>옥수수</b> 대물림(재래종), 작고 검은색 찰지고 맛있으나 작음</p> <p><b>대파(조선대파)</b></p> <p><b>목화, 상추, 우엉, 해바라기</b> 씨드림에서 받음</p> <p><b>수세미</b> 김다송님</p> <p><b>오크라</b></p>
--	---

**곶감**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

• 편 집 인 이용규

• 주 소 55310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

• 대 표 전 화 063-291-8448 팩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리06002 구독료 월 1천원 후원 월 만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 2020년 아동친화도시 브랜드 공모전 (네이밍+캐릭터)



기간\_ 2020년 3월 31일(화)까지

접수\_ 이메일 [cfcwanju@korea.kr](mailto:cfcwanju@korea.kr)

290-2775

자세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wanjucfc>



# 2020 완주군 청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공모기간 2020. 2. 19 ~ 3. 18

접수처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

063-290-323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예방행동수칙



30초이상 손바닥, 손톱밑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착용



기침할때 옷소매로 가린 후 기침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감염이 의심될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